



2002 한일 월드컵때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응원하고 있는 '붉은악마'들.



신명나는 한국사
고준환 지음
인간과자연사 펴냄 | 1만8천원



고준환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속 변형의 증거물로 경주 불국사를 으뜸으로 꼽는다. 사진은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국보 23호).

우리 역사... 반만년 대륙의 영광사

‘한민족의 역사는 2천년 반도의 패배사’가 아니라 ‘반만년 대륙의 영광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점적 통사이다. 법사학자이자 국사학회회 회장인 고준환 경기대 교수(법학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건 중심으로 정리한 우리나라 역사책을 최근 펴냈다. 제목부터 범상하다. <신명나는 한국사>이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지은이는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있다”며 “이는 단군성조께서 개천할 때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광명을 분원삼아 신바람나는 신성한 나라인 고조선을 세웠고 우리 민족은 대륙민족의 영광스런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 제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제목의 의식해서인지 이 책에는 우리 민족이 신명날 수 있는 사건 중심으로 단군 조선의 건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반만년 역사를 시간 흐름에 따라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예를 들면 지은이는 한일 월드컵 축구때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8천만 민족이 하나돼 세계 4강 신화를 이룩한 것을 신명나는 경험으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이 책에서 붉은 악마의 모델이 된 한민족의 수호신 ‘치우천황’을 소개한다. 치우천황은 단군 기원전 374년에 배달국 제 14대 자오지(慈烏志) 천황으로 등극해 동북아시아 대륙에 부국강병의 절정을 이룬분이라는 것이다.

한민족의 수호신 ‘치우천황’ 등

단군 고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신명나게 전개된 민족사 정리

또한 지은이는 역사속 변형했던 증거물들인 유물과 유적 등을 구체적 사건과 연계해 소개했다. 독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지은이의 의도다.

그 변형의 증거물로 지은이가 제일 먼저 손에 꼽는 것은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지은이는 특히 석굴암이야말로 신라불교의 흔적이 가장 아름답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문화유물이라며, 보면볼수록 신명나는 우리 역사유물 중 하나라고 극찬한다.

이 책이 기존 역사서들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점이 있다. 바로 역사적인 시대구분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단군조선·열국시대(3부여, 남삼한 등), 4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3국 쟁패시대(고구려 백제 신라가 쟁패한 98년간)·남북국시대(남신라, 북발해)·고려·조선왕조·항일독립운동시대(일제강점기)·남북분단시대 등으로 시대 구분을 서술

했다. 특히 이 책에서 지은이는 기존의 삼국시대 구분을 4국시대와 3국 쟁패시대로 나눴다. 가야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제자리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즉 4국시대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가 약 520여년간 공존한 시대이고, 3국 쟁패시대는 가야가 신라에 망하고 이어 백제가 망할때까지 98년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쟁패를 거듭하던 시대라는 것이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가야사의 큰 흔적들과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포함시킨 것은 잊혀진 가야사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또 고려시대에서 지은이는 독립운동가요 민주 사회가 있던 단군 신재호 선생의 <조선사 연구초>를 인용하며, ‘묘청의 난’ 이야말로 고려와 조선왕조 1천년간에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제 1대 사건이라고 소개한다. 아울러 묘청 대사의 평양 대위국 건설이후 단군조선의 옛 강토를 복구(다물, 多勿)하기 위한 서경전도와 금(鎏) 정복론 등 자주 복벽 운동에 대한 노력들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중국의 동북공정대비 등 국사학뿐 아니라 ‘한국영토보전사’와 독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등 국토회와 ‘한글날과 나라글자의 정척’ 등 국어학의 뿌리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왜도나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 지음
부키 펴냄 | 9천8백원

이 책은 장하준, 정승일 교수의 대화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마치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마치 한 사람의 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저성장과 빈부격차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구도라고 한다.

외국자본이 들어와 경제를 혼란 시킬 때 기업은 장기투자를 생각할 수 없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힘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자본에는 국적이 필요하다. 시장은 시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지은이들이 한 번에 완성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만남을 가져서 만든 내용이기에 때때로 반복적인 내용에 눈이 쏠린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책의 내용들이 경제적 사건이 지나가고 사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란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의 약점 중 하나가 그런 ‘사후야방문’ 적인 것이지만)

1997년에 이 땅에는 IMF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위기가 왔다. 이제는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때 우리가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되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명암

그 당시에는 외자를 끌어와서 급한 불을 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전후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아쉽다.

또한 과연 우리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택하고 말고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옵션적인 것이냐고 생각하는 데는 의문이 간다. 외교에는 강국과 약소국의 차이가 분명하다. 우리정부가 선택한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도 과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헤쳐가면서 스웨덴 식의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남는다. 내부와 외부에서 상상 이상의 저항이 따를 것이다.

하나의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론이 모든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에 얽매는 것 같다. 박정희와 정치적으로 선을 긋기 위해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에서 얻은 부가적인 소득 중 하나다. 이 책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까지 교조적으로 흘러왔던 경제에 대한 시각과 발상을 전환해줄 수 있는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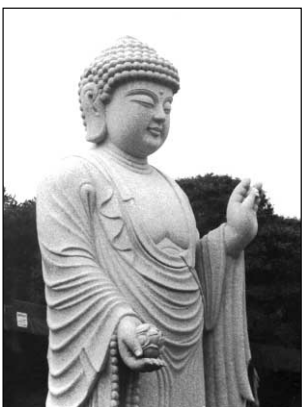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으로 성장했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그리워한다. 그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잘 잘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은이들의 말에 따르면 고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착취와 억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큰 정부에 의해 자유를 조금 뺏기더라도 고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맡겨 저성장과 고용불안정에 휘둘러야 할 것인가 말이다.

김동현(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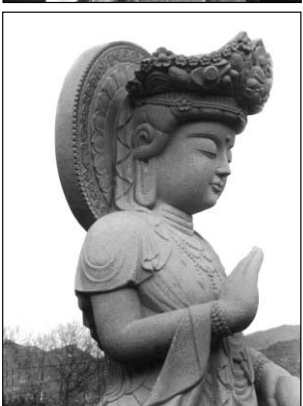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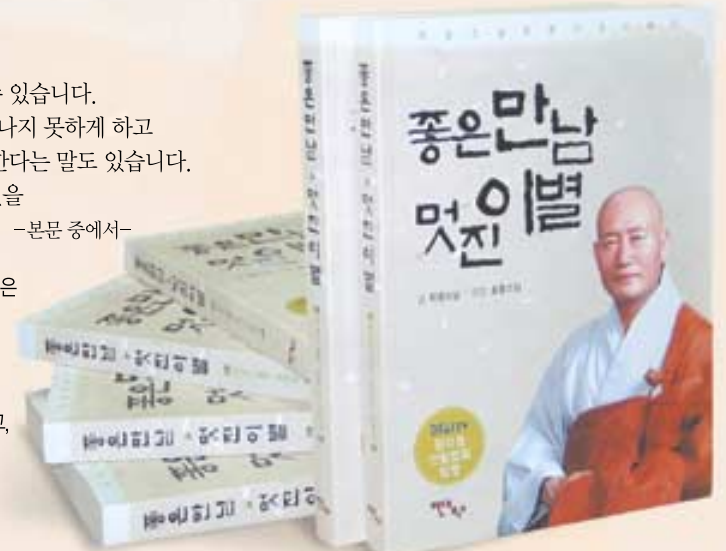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변형국판 240페이지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심판의 국토를 지나 왕생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숨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직지사 주지 · (前) 화양산 봉암사 주지 · (前) 문달산 김릉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前) 현제 김릉사 화주 · (前) 생령나눔 실천본부 부이사장 · (前) 자광스님의 증도가 證道歌-개달음의 노래 출판(간판)

현대 불교 뉴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